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구분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와 전투동원준비실태, 훈련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구분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과 같은 복잡한 전투정황들과 조건들을 조성해놓고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전투정황을 신속히 분석판단하고 유리한 전투환경을 마련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며 싸움준비에서 미진된 문제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자나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구분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과 함께 훈련에서 주체성, 실용성, 과학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구분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한것만큼 전투정치훈련과 부대지휘관리에서 전



군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시키는데 대한 문제, 전투진지들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에서 비준해준 표준병영설계대로 새로 꾸린 구분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스히 보살펴주시였다.

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관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안고 그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콩농사, 온실농사, 축산을 비롯한 부업에 힘을 넣어 구분대를 잘사는 구분대, 부자구분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규모있게 일떠선 병영을 바라보시며 건물들의 외벽을 꿈보미장으로 처리하니 보기 좋다고, 담쟁이까지 뻗어오르면 불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병영과 주둔지역의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구분대 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부전선에 위치한 마합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방어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따뜻한 단화도 나누시면서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침실의 난방보장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고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여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였으며 세목장을 돌아보시면서는 태양열물가열기를 리용하여 군인들이 더운물을 마음껏 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곳 방어대와 같이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최전방의 군인들은 그 누구보다 혁명적신념이 투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방어대군인들을 견결한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역세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콩농사, 온실농사, 축산과 함께 수산부업에도 힘을 넣어 심초소군인들이 육지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합도방어대를 응심깊고 다심한 아버지와 어머니, 만형, 만누이와 같은 지휘관들과 서로 돕고 이끄는 정다운 동지들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와 풍성한 식탁이 있는 병사들의 보금자리, 사랑과 정이 뜨겁게 흐르고 정으로 굳게 뭉친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소에 오르시여 방어대의 화력타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포배치와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싸움이 터지면 마합도방어대 군인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의 화

력타격조직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변화되는 적정에 맞게 전투문진수정보충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새로운 포병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데 대한 문제 등 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불의에 마합도방어대 1중대 2소대 3포들이 미 차지한 진지에서 기동시켜 정해진 목표를 타격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전선수역을 통채로 들었다는 요란한 포성이 울려 퍼지고 멸적의 포탄들이 대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해진 해상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지난 7월에 진행된 섬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경기에서 명포수상을 쟁취한 이곳 방어대 포병들이 역시 다르다고, 마합도방어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고 기쁨에 넘

쳐 말씀하시면서 사격결과를 높이 평가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수호를 위한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하는것이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면서 마합도방어대를 돌아보고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은 훈련을 드세게 강도높이 진행하여 포병들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들로 준비시킨것이라고, 단방에 목표를 명중한 군인들을 모두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합도방어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합심하여 당중앙뜨락과 잇닿아있는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땅, 전선수역의 이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침의 전함으로,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변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의 전체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사랑하고 추억할 어머니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따스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품어주고 키워주는 살뜰하고 인자한 어머니에게 예로부터 어머니의 어머니는 없고 어머니사랑을 통가할 사랑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란 말이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과 같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애국가들로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적은 없다.

조국을 받들어가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영웅어머니들, 나라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모성영웅어머니들, 과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녀교수, 녀박사들...

량심과 성실성을 인간의 가장 높은 금새로 여기는 공화국에서는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며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녀인들이 국가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주권기관의 담당자로 되어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

돌아켜보면 해방전 이 땅의 어머니들은 누구보다 피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어머니들도 녀성의 권리를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보람, 행복을 쫓아주게 되었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도록 하시어 녀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주제50(1961)년

# 태양의 빛발아래 만발하는 화원

11월에는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시고 대회에 참석하시어 부강조국건설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큰 고무와 믿음을 주시었다.

녀성들과 어머니들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시었으며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어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된 조선녀성들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녀성중시정치를 받드시어 그들이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그 육한 향기를 풍기도록 하여주

시었다. 보석주단이 깔린 평양산원의 중앙홀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좋은 위치에 옮겨세워진 현대적인 신의주화장품공장,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온 나라의 축복속에 불리워진 노래 《사랑하시라》는 녀성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느끼게 하여준다.

녀성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야 조국이 힘차게 전진한다고 하시며 녀성들을 시대와 혁명의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녀성중시의 사상과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국제부

녀절을 맞으며 축하공연무대를 열도록 하시고 나라의 튼튼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시고 주제 101(2012)년에는 첫 어머니날을 계기로 전국각지의 어머니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성대한 대회도 마련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가정과 사회, 나라와 인민을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녀성들의 수고를 헤아려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그이의 사랑속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은 또

얼마나 많은것을 용변으로 말해주고있는것인가.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으시었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우리가 유선중앙연구소를 건설하는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녀성들이 유선중과 유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며 철저한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시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녀성들의 건강을 녀려하여 의로기지를 여러차례나 찾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준 레를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이 있었기에 공화국녀성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남성들과 어깨 나란히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을 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 로력영웅,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된 직포공도 있으며 자기 고향향을 꽃피운 창성의 녀성들과 인민의 참된 봉사자가 된 강성원의 녀성들도 있다. 조국을 지켜 하늘을 날으는 초음속비행기의 녀주인공들도 있고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녀자축구명수들도 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외세의 악정과 봉건의 질곡속에서 열두자락 치마폭에서 눈물이 마를날 없었던 이 나라 녀성들, 울밑에 피어나는 《봉선화》 마냥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할수 없는 숙명으로만 여겨야 했던 조선녀성들이 오늘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하며 행복을 마음껏 누리가고있으니 조선녀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녀성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녀성들이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가.

미국에서는 해마다 600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으며 유럽에서도 녀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녀성들은 광풍앞의 가냘픈 초봄, 비바람에 떨어지는 락엽,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같은 존재가 되어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오죽했으면 《녀성은 항상 불쌍하다.》, 《평등구호는 빛 좋은 개살구》, 《녀성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 《녀성은 결혼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한다.》 등 울분과 비탄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겠는가. 꽃으로 피고싶어도 품어주고 자양을 주는 빛과 토양이 없어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되고있는 녀성수난의 력사는 공화국의 품에서 누리는 조선녀성들의 행복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녀성중중, 녀성중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곳에 녀성들의 복된 삶도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꽃들이 만발하듯이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녀성중중의 인덕정치가 있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삶과 행복은 보람차고 아름다운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식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 옥류아동병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과 지방의 락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육아원과 애육원, 야영소와 소년회관을 비롯한 시설들은 아이들을 위한것이 자 어머니들을 위한것이다. 강반석락아소, 창광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주락아소도 그렇고 주유치원도 우리를 위해 있다. 국가가 아이들을 맡아주기때문에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자식이 잘되기 바라며 성장과 교육교양에 온갖 지성을 다하는 어머니들을 위하여 국가는 세세대대에 대한 사회적책과 혜택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다.

자식을 위해 손이 마를새 없고 추우면 추울새라, 더우면 더울새라 원심을 기울이며 보살피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를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으로 만드시었다.

그이는 원아들의 친부모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설움중에 제일 큰 설움은 고아의 설움이다. 부모없는 설움은 그 어떤 사랑이나 정으로도 달래거나 가실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한가정의 모성애에 비기지 못할 웅성깊고 한량없는 보살핌이다.

몇해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었다.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의 량

자식을 위해 굶은일, 마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은 당에서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게 하도록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원아들을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기대과 열화같은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었다.

자식을 위해 굶은일, 마

대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어머니공장이라고 하시며 생산을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온 나라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

시었다.

어머니공장,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자. 그이의 말씀에는 민족의 미래인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일생 자식을 위해 모든것을 다 기울이는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온 나라 아이들을 돌보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참으로 그이는 친부모가 되시어 원아들을 보살피시고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온 나라 아이들을 돌보시며 민족의 훌륭한 아들딸로 키우시는 이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이다.

본사기자 리 설



머칠전이였다. 나는 길거리로 지나다 금방 상점에서 축하엽서를 사가지고 나오는 처녀들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야, 어머니들이 참 부럽다야.》

《참, 애들두. 그럼 너희들도 어머니가 되면 되지 않나.》

어머니날을 앞두고 거리가 들썩하게 웃음을 날리는 처녀들을 보느라니 생각은 깊어졌다.

어머니, 가슴을 뭉클 울리는 부름이다. 세상에 어머니라는 부름보다 더 신성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부름은 없다고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때 살인《정권》에 의해 생애같은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자식 낳은게 죄다, 어머니가 된것이 죄인이라

고 절규하며 지옥같은 남조선땅에서 더는 어머니로 살지 않으려다 하고 울분을 토한것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나라의 꽃으로, 사회의 기둥으로 불리우고 《사랑하시라》, 《녀성은 꽃

이라네》, 《우리 집 사랑》과 같은 녀성찬가속에 떠받들려 사는 공화국의 어머니들의 행복한 생활과 녀성혐오, 녀성차별과 같은 생지옥속에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남녘의 어머니들의 불행한 처지는 이렇듯 하늘 땅같은 차이가 있다.

녀성중중의 화원을 펼쳐주시고 녀성들이 사회와 시대의 역군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핌속에 오늘날 이 나라의 어머니들 아니 모든 녀성들이 참다운 삶을 향유하고있는것이다.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도 성대하게 진행하여 어머니들의 명절을 온 나라의 축복속에 의의있게 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어머니, 나는 다시금이 소중한 부름을 외워보았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녀성들을 영원히 아름다운의 꽃으로 피워주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진정한 운명을 다 맡기고 따를 어머니품이다.

리경월



자연을 떠나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면서도 때로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막대한 재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세계이다.

조선의 자연재해는 언제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하였다. 결코 재해의 크기나 재난의 후과때문만이 아니다. 세계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경이적인 광경들이 바로 그 재해의 광란속에서 놀라게 펼쳐지기에 때문이다.

함북도북부지역에서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은 이번 재난은 자기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공화국인민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 주었다.

한 일군은 범람하는 강을 건너다가 사나운 물살에 휘말려 드는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모습이 든 배낭 끈을 꼭 부여잡았다고 한다. 몸이 걸린 옷마저 찢겨져나가는 격류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해 억 세계 들어친 배낭 끈을 놓지 않았다.

한주일후 수십리나 떨어진 곳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였

◎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한것 (13) ◎

인민은 령도자를 믿고 따른다

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쏟았다. 습기 한점 배지 않은 20여 상의 초상화, 한복숨바쳐 자기령도자의 초상화를 지킨 그의 모습앞에 숙연히 머리숙였다.

길길이 날뛰며 범람하는 두만강북편에서 4일간의 결사전을 벌린 류다섬사람들의 이야기도 눈굽을 짓게 한다. 큰물을 피해 산으로 오르던 걸음을 스스로 돌려 안굴혁명전적지에 모셔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한복바쳐 보위해낸 사람들의 이야기,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보위하는 길에 서슴없이 목숨을 내던 회령시 송학고급중학교 10명 교원, 학생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경원군의 한 일군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울리는 것인가. 큰물을 피해 대피장소로 가는 1000여명의 인민들속에 가산을 들고 나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

들의 초상화만을 정히 품어안고 걸어가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이런 인민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고...

사품치며 밀려드는 큰물을 피해 나무에 오른 온성군 고성협동농장의 3명의 청년작업반원들,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서로 교대해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모습을 목숨처럼 부여안고 29시간을 갓까지 이겨낸 그 순결하고 강의한 신념앞에 외국인들조차 엄지손가락을 흔들었다.

왜 그랬겠는가? 믿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잃어버린 집도 생기고 폐허가 된 공장도 다시 일떠세울수 있다, 그 품에만 안기면 그 어떤 재난속에서도 살아날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지닐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믿음이였다.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차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우르르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믿음은 세상에 오직 하나 공화국인민들만이 간직한 가장 굳건한 믿음이다.

1960년대중엽, 그때에도 평양에 폐년에 있어보지 못한 큰물피해가 들이닥치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디론가 급히 걸음을 옮기고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시였다. 아주머니네 집에는 물이 들지 않았는가 물으시는 그이께 집에 물이 좀 들기는 하였지만 직장부터 먼저 복구해야겠다고 말씀올린 평범한 여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않고 외우신 그 여성의 모습은 바로 재난속에서 수령을 믿고 더 억세계 일떠서는 인민의 모습이였다.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그 절대불변의 믿음이 낳은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

집이였고 수많은 심장들이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지켜낸 집이였다. 그 힘을 어찌 철근콘크리트에 비할수 있으랴.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재해는 결코 불행이 아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되고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이 열백배로 뜨거워지는 나날들이 흐르고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것은 령도자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만 있으면 절해고도에서도 두렵지 않고 형언할수 없는 고난속에서도 비판을 모른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령도자에 대한 믿음은 곧 밝은 래일에 대한 믿음, 삶과 희망의 전부이다. 이런 믿음을 그 누가 허물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철의 대오를 어찌 막을수 있으랴.

그 믿음으로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여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

어서 오라 두팔 벌려 부르는 어머니모습처럼 정결게 안겨오는 평양산원 나라한 또 하나의 여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얼마전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활짝 꽃피어나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만복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모습을 신문지대에 담기 위해 떠났던 기자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서 취재수첩을 펼치였다. 다목적렌트겐, CT, 유관내시경 등 첨단의료설비들을 비롯한 수십여종의 의료설비들이 그쫘히 갖추어져있는 이곳으로 매일과 같이 여성들이 찾아오고있었다.

이들중에는 환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였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여성들을 위해 진행되는 전주민검진과 여성들이 많이 일하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서—

는 기관, 기업소들에 나가 진행되는 이동검진을 비롯하여 여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유선검진체계가 세워져있어 이렇듯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고있는 것이였다.

이곳 연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세워진 검진체계에 의해 개원후 지난 3년동안에만도 수만명의 여성들이 검진을 받았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전문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인 보진체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는 하나의 사실자료였다.

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

서 여성들이 유선질병치료를 받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한 자료였다. 유선촬영을 하는데 100~150US\$, 간단한 수술을 받는데 1 300~4 600US\$, 절제수술을 받는데 6 500~12 700US\$의 비용이 들며 항암제를 비롯한 약값만 해도 7 200~1만 4 000US\$에 달한다는 것이였다.

《치료비, 약값이라는 말조차 모르며 우리 여성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어떻게 수자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이였다. 진정 끝없이 이어지고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무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잼수 없는 무한한것이였다.

건설중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고 새로 건설되었을 때도 찾아오시여 보건부문에서 유선암을 조기적발하기 위한 검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체도의 혜택속에 건강한 몸으로 만복을 누리갈 여성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시다.

하기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이곳 유선중앙연구소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병치료를 받는 여성들누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며 고마움의 마음을 터치고있다. —나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입원하여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고 완치된 평범한 노동자의 안해이다. 이런 희한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보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내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병에 걸렸더라면 오늘과 같이 소생하리라고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입원생활기간에 체험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

—나는 두메산골에서 왔다. ... 입원생활기간은 정말 꿈같은 나날이였다. 평범한 농장원인 내가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의료봉사를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느라니 우리 여성들에게 돌려주시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은정이 가슴뜨겁게 미쳐와 눈시울이 뜨거웠다.

...

이것은 그들만이 아닌 북

받은 이 나라의 여성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행복의 목소리 인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최근 각계층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지난해에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 발취된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를 담은 공연은 관람자들에게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이 신화속의 주인공과 같은 영웅청년들을 탄생시켰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즐기차게 전진하고있는 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언제나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 청년전위로 높이 내세워주고있다.

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헌신 위훈을 떨치고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이다.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에도, 세상에 자랑높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청년들의 영웅적위훈과 소행이 깃들여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 특대형 추문사건의 장본인은 박근혜

지난 4일 남조선집권자 박근혜가 두번째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10월 25일에 한 90초짜리 《사과문》에서 9분짜리로 길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사과문》의 확장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의 평이다.

두번째 《사과문》이라는 것을 몇문장 뜯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바램에서 추진된 일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권력을 쟁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자기는 잘하느라 했는데 《특정개인》이 《잘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특정개인》이란 최순실과 그에 련루된 청와대의 일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권력층, 전경련 등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요관계자들로 지목된 전 미래재단 이사장 김형수, 사무총장 리성현,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을 비롯한 두 재단의 핵심들이

있던 사람들이 언론에 공개한 말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문고리3인방》의 한명인 청와대의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이 수시로 《(대통령)의 뜻》이라며 재단의 인사문제는 물론 운영에까지 직접 개입하였다고 실로하였다.

리성현은 박근혜의 지시로 자기는 청와대의 경제, 외교안보, 홍보,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수석비서관들과 직접 통화하고 만났다고 했으며 검찰에 체포된 안종범도 《재단설립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모금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박근혜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다루던 《문고리3인방》의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청와대기밀 문서류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박근혜가 두 재단이 생

겨나기 석달전인 지난해 7월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가 7명을 따로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는 자로도 있다.

법조계에선 《박근혜가 재단설립부터 운영까지 일일이 챙겼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특정개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과문》에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가족간의 교류마저 끊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있었던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

《가족간의 교류마저 끊》은 박근혜의 《개인사》란 무엇인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전 남편 정은희와의 추문 등이 등장하는 독신녀성의 문제?

3일에 한번으로 1년에 130여벌을 갈아입는다는 옷문제?

박근혜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된 최순실과의 관계를 단순히 《개인사》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최순실이 관여한 것은 결코 《개인사》만이 아니라 이것이 여론의 평이고 분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최순실과 그 자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왕래가 끊긴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최순실은 단순히 개인사를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PC에 담긴 청와대문서들이 증명한다.》고 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최순실이 박근혜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만들기로부터 시작하여 인사, 정치, 경제, 문화, 체

육, 관광, 군사, 북남관계, 외교 등 모든것에 개입하였다는 자료들을 속속 보도하고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경제의 담장을 낮추었다.》느니,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락인적하고있는 현실도 참 안타깝다.》느니, 《일부의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그 모든것을 《개인사》로 얼버무리려고 했다.

왜, 《최순실게이트》는 자기의 《실수》일뿐이고 최종책임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자는 것이다.

그에 대해 서강대학교의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흔히들 말하는 (최순실국정풍단)이나 (최순실게이트)로 (대한민국)호는 멈췄다. 개념을 분명히 하자. 이번 사태는 분명히 (박근혜국정풍단)이고 (박근혜게이트)다. ... 최순실을 중심

에 놓으니 관련자들의 처벌조항들이 벌써부터 일반적 권력형비리정도로 다루어질 강제모습이나 퇴물, 리권개입, 직권람용, 공무상비밀루설 등으로 정해져가고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풍단의 뿌리인 (대통령)은 정치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임정도만 지고 법적인 책임은 최순실이나 수석 등이 대충지고 사태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일이다.》

남조선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고등 학교학생들까지 이번 추문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라고 하면서 《박근혜야》를 웨치고있다.

《저희 청소년들은 앞으로 깊어져야 할 (정부) 부채와 폐쇄적사회구조를 보며 이리려고 공부했다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야말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포

문을 여는 게이트역할을 한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리용해 권력을 램용했다면 이제 는 그 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시국대회에서 한 고등학교 녀학생이 한 이 말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박근혜의 말을 믿지 않으며 박근혜가 책임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남조선민심을 그대로 대변해준다.

오죽하면 보수세력들속에서도 《박근혜 한명때문에 보수세력 전체가 다 죽는다.》, 《박근혜 빨리 버려야 한다. 안그러면 보수 다 몰살된다.》는 비명이 터져나왔는가.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은 《공주》와 무당에게 속아 살아온, 그들에게 빼앗긴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항거의 초불을 들었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야》의 함성속에 박근혜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지금 남조선의 정치계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최순실게이트》로 하여 수라장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당사이에 여러가지 수습대책들이 제기되고있는데 그중에서 기본은 《중립내각》 문제이다.

지난 시기 야당이 《중립내각》 문제를 제기할때 쓴 오이보듯 외면해버린 《새누리당》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더욱 극성을 부리고있다.

무엇때문인가. 지금 《새누리당》의 처지는 풍량의 쪽배마냥 비참하기 그지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있어서 박근혜의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은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레닌 《대선》 패배는 물론 《새누리당》 존재자체도 가늠하기 힘들게 하고있다.

이로부터 《새누리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니, 《박근혜의 담화가 진정성을 담은 사과》라느니, 《국정운영중단사태방지가 우선》이라느니 하면서 특대형추문사건의 초점을 최순실에게 돌려놓고 시간을 벌며 박근혜년을 살리면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교활하게 돌아대고있다. 특히는 최순실과의 련관문제에 대하여 모르쇠하면서 이 모퉁이에서 어떻게 하나 빠져나가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러나 가리울수도 덜을수도 없는것이 바로 죄악이다.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은 최순실의 문제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며 외면하였지만 지난 2006년 9월 박근혜와 함께 도이철란드를 행차할 당시 최순실, 정은희도 동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부정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관계문제는 어제 오늘날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퍼 이전에 벌써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는 박근혜의 심신을 좌우지하는 최태민일가를 놔두면 앞으로 큰 우환을 당할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것뿐이 아니다.

2007년 당시 리명박이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태민목사의 딸 최순실과 남편 정은희가 국정풍단의 대를 잇게 될것》이라고 한 사실, 이전 《한나라

을 두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요인중 99%는 미국의 조종과 예비 박정희의 후광이며 본인의 능력은 1%정도밖에 안된다고 조롱하였다.

한 프랑스작가는 《어제의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일의 범죄에 그 용기를 주는것과 똑같은 어리석은것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최태민가족에게 돌아나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은 박근혜의 허물을 덮어버리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앉힌 《새누리당》은

그러나 최순실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은 온몸으로 이 사건을 밀막아보려고 발악하였다.

《새누리당》은 파렴치하게도 박근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가하면 지어 《새누리당》대표라는자는 《나도 연계를 작성하기전 친구 등 지인에게 물어보고 쓴다.》느니 뭐니 하며 로 골적으로 박근혜를 비호 두둔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는 순실공화국의 (대통령)》, 《최순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온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부끄럽다.》고 격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앞을 다루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갈피를 파헤치며 그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에게도 비난의 눈길을 돌리고있다.

여기에 겁을 먹은 《새누리당》은 급기야 《용서할수 없다.》느니, 《처벌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박근혜탈당과 지도부사퇴, 《중립내각》구성 등 어떻게 하나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있다.

기만적인 《새누리당》의 이러한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각계의 비난을 누갓지며 민심을 기만우롱하여 재집권을 이루어보려는 반역당의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중립내각》 문제에 극성을 피우고있는것 역시 박근혜의 《내시집단》, 《사실정당》으로 불리우던 《새누리당》의 사태회피를 위한 얄은수일파름이다.

《새누리당》이 《중립내각》이니 뭐니 하며 온갖 궤변과 기만극을 펼쳐놓아도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특대형범죄자들과 떨어질수 없는 한몸통이라는 추악한 정체만을 드러낼뿐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 떨어질수 없는 한몸통

당》의원이 최순실에 대해 《여당도 알고있었다, 모른다는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것》이라고 비판한 사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까지도 2007년에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 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본국에 비밀문건을 보낸 사실들은 사건이 터지기 썩 이전에 벌써 박근혜와 최순실문제가 여론화되었음을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최순실에게 넋을 빼앗긴 박근혜를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대선》 후보로 적극 내세웠다.

그것은 당시 친미보수 세력에 대한 민심의 거세 찬 분노로 하여 《새누리당》이 커다란 몰락위기에 직면하였던 현실과 련되어있다.

《새누리당》은 위기로부러의 출로로 남조선의 일부 주민들속에 남아있는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숭배심을 리용하였으며 박근혜를 저들의 운명을 건질수 있는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남조선언론들은 이 사실

이번 최순실사건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거수기, 손발이 되어 현 당국의 반인민적이며 사대매국적인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하고 옹호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가슴기살균제문제, 백남기사건 등 민생을 먼저 논해야 할 20대 《국회》의 첫날부터 박근혜를 위한 《우병우지키기》, 《싸드》배치문제를 먼저 내세운것도 바로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에게는 민생보다 박근혜를 위한, 자기를 위한 문제가 우선인 것이다.

《국정》과 관련한 박근혜의 모든 결정이 최순실의 손에서 검토완성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여기에 앞장선 《새누리당》은 최순실사건의 직접적관계자이며 공범자가 아닐수 없다.

오물은 썩을수록 역한 냄새가 나며 종치는 굵으면 터지기마련이라고 썩어문드러진 허수아비 박근혜 《정권》의 일대 정추문사건이 드디어 세상사람들앞에 자기 몸통이를 드러내었다.



#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한다》

분노한 민심이 거대한 초불의 바다로 불타올랐다. 지난 5일 저녁 청와대가 지척에서 보이는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은 손에 손에 초불을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은 물론 60, 70대의 로인들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초불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였다.

투쟁이 처음으로 벌어진 것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 학살사건때였다. 당시 시위참가자들은 미군법정에 살인자인 미군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한것을 계기로 격렬한 반미시위를 벌여왔다. 2004년 4월 4일인민봉기때에 있는 《대통령》 탄핵사건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은 격렬한 초불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그해에 진행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여지없는

4.19혁명, 6월항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고있다. 《지금은 4.19혁명전야이다.》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의 4월인민봉기때 처럼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열의로 충만되어있다.

남조선의 1 553개의 투쟁단체들이 련대하여 결성한 《11.12 박근혜퇴진 촉구 시민대행진추진위원회》는 《한명이 말하면 육이지만 10만이 모이면 민심이 되고 100만이 모이면 국민의 명령이 된다.》, 《12일 100만인중총궐기대회로 박근혜 퇴진명령을 내리자.》고 하면서 박근혜에게 11월 12일 낮 12시까지 자진사퇴할데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비록 개개의 초불은 작아도 초불의 바다, 초불의 대하는 굶는 쇠물보다 더 뜨겁고 그 위력은 솟구치는 활화산보다 더 세차다.

지나온 투쟁과정을 통하여 초불의 대하가 지닌 거세찬 힘, 그 어떤 불의도 짓부셔버리는 위력을 깨달은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불, 투쟁의 초불로 박근혜패당에게 최후명령을 안겨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지난 5일 남조선의 대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조성해가 한 연설은 집회참가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아래에 그 연설문을 소개한다. 언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직중인 조성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분들이 와주신걸 보아하니 제가 혼자서는 아닌것같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나라의 어떤 사전이나 관례에도 나라와 국정을 무당의 손에 맡기고 꼭두각시노릇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겠습니다.)네, 그러한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나라를 방치하고 국민을 통락해왔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된 후에도 담배세 등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가을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했겠습니까.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이 살아있는 력사책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

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 부리는 개, 돼지, 흙수저라고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 위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을 수험생인니를 위해, 또 아직은 어려워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래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이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게이트》 외에도 《력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합의》, 《〈세월호 참사〉》, 《〈한반도싸드배치〉》 등의 말도 안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통락해왔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된 후에도 담배세 등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가을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했겠습니까. 허나 저는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이 살아있는 력사책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

던 나라의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모두 행방을 모르게 되었고 우리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폐쇄적사회구조를 보며 이리려고 공부했다 자괴감이 들고 피로울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씨야말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포문을 여는 게이 트역할을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씨나 박 《대통령》 서로 확연히 다른것이 있다면 한, 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 즉 《대통령》이란 직함과 권력을 가졌다 는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세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인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이 람발하고 국민의 허락없이 제멋대로 이를 누 군가에게 위임하는 등 람용해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리용해 권력을 람용했다면 이제는 그 람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감성팔이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책임적대처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

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짜리,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적사과를 촉구하는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20대 지지자가 100명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를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담아낼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가봐, 그래서 또다시 이런 제정일치사회속에 몸담아야 할가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꾸는 래일을 위하여 부디 본질을 잊지 말아주시시오. 56년전 1960년 2월 28일 대구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또다시 우리 대구시민들의 정의의 기적을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딘지, 거긴 무엇이 있을지 또 얼마나 절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모두 꼭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본사기자

## 초 불 의 힘

참패를 당하였다.

2008년에는 10대 녀학생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초불을 든것을 계기로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거세찬 초불시위가 벌어져 보수패당의 사과를 받아냈다. 2014년에 있는 《세월호참사》에도 남조선인민들은 초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당국의 살인적만행을 규탄하였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초불시위는 집권자의 퇴진 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기의 초불시위들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은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로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대학생, 문화예술인, 녀성, 청소년 등 각계층 시민들은 저마끔 연단에 올라 정치적인 방법을 이 끌어낼수 없다. 오직 국민들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가능하다고 언명하면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못참겠다. 갈아엎자!》, 《이게 나라냐.》고 피타게 부르짖었다.

이날 시위에는 서울에서만도 20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남조선의 주요도시들에서 진행된 시위참가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무려 30만여명에 달하였다.

30만여명이 추켜든 초불, 이 초불의 대하는 무언을 말해주는가. 남조선에서 대규모초불



# 아 무 리 발 벼 등 질 해 봐 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 2차에 걸치는 《사과》 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운명이 경각에 달한 박근혜는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마지막 지탱점의 하나인 《새누리당》 것들을 내세워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다.

박근혜의 입김을 쏘인 《새누리당》 떨거지들은 현 사태가 박근혜의 퇴진으로 이어지는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탈당사태가 일어나고 당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지는 등 극도의 궁지에 몰려 허우적대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만일 남조선 각계층의 강성한 요구대로 박근혜년이 퇴진하는 경우에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와 《국정》 운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1960년 리승만역도의 하야로 해체된 《자유당》의 전철을 밟을수밖에 없으며 60일내에 치를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도 민주개혁세력에게 패하게 된다.

이로부터 《새누리당》 떨거지들은 검찰의 수사와 진상규명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하나 최순실

을 비롯한 몇몇 줄개들에게 특대형추문사건의 책임이 돌아가게 음모를 꾸미는 한편 박근혜의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서를 구한 담화》라느니, 《진정성을 담은 호소》라느니 하면서 보수층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정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더 큰 정치적혼란에 빠지게 된다.》,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당장은 예산안처리부터 해야 한다.》고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듯 한 낚새를 피우면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격노한 각계층의 민심을 녹차쳐보려고 꾀하고있다.

한편 당내대립과 갈등을 수습하고 보수층을 집결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지금 《새누리당》내에서 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사이의 파벌싸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그것은 보수 지지층전반의 더 큰 동요와 와해를 가져오고있다.

비박근혜파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당권을 차지하고 다음해 《대통령》선거에도 자파인물을 내세울 목적에 현 당지도부사태, 비상대책위원

회구성, 박근혜탈당 등을 강하게 주장해나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에서 갈라져나갈 것이라고 협박하고있다.

반면에 친박근혜파는 현 위기에서 비박근혜파가 하자는데로 끌려가다가는 저들만 쫓막 녹아나게 되어있으므로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것을 전면에 내걸고 당지도부유지를 한사코 고집하면서 버리고있다.

이런 속에서 비박근혜파들속에서는 야권의 정치개혁운동에 편승하려는 기미도 나타나고있다.

급해맞은 박근혜파의 《새누리당》대표 리정현과 원내대표 정진석을 비롯한 중진인물들은 《야당은 리합집산을 밥먹듯 하였지만 《새누리당》은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탈당하여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회유절반, 위협절반으로 비박근혜파들의 공세를 견제하고 어떻게 하나 분열을 막아보려 꾀하고있다.

《새누리당》 떨거지들이 《민심의 다양한 경청》이니, 《야당이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한 자세》니 하면서 박근혜와 여야 3당대표회담제안놀음을 벌리고있는것도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 성남시장 리

재명, 국민의 당 전 대표 안철수를 비롯한 야권 《대선》 후보들이 각계층의 박근혜퇴진투쟁에 합류하였고 야당지도부들도 이번주까지 박근혜가 《2선후퇴》, 《탈당》,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임명》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언론들은 이제 야당들까지 각계층의 투쟁에 합세해나서는 경우 그야말로 4.19와 같은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새누리당》 것들이 귀찮은 소리들을 늘어놓는것이 칠두칠미 야당들을 구슬려 박근혜의 퇴진을 막고 집권여당의 지위를 고수하며 야당들이 각계층의 투쟁에 합세하지 못하게 하려는 알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까밝히고있다.

이제 와서 박근혜가 눈아래로 보던 《새누리당》 떨거지들까지 앞잡이로 내세워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빠질 길은 없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남조선의 각계층 민심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기때문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 함께 지옥에 가야 할 판문당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사건으로 극도의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와 여당이 《공멸》할수 있다고 아우성치면서 다음기 《대선》은 물론 존재자체도 위협하는 이번 사건의 화살과녁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하고있다.

이로부터 《새누리당》은 저마다 《박근혜탈당》, 《검찰조사를 통한 진상해명》, 《청와대 내각의 전면개편》을 내걸고있으며 모든 책임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로 떠밀고있다고 한다.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것》이니 뭐니 하였는가 하면 원내대표 정진석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뼈저릿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사태수습을 위해 내들은 이러한 《특검》 도입이 요. 《거국중립내각》 구

성제안이요 뭐요 하는것들은 이번 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으로서 사회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지도부는 최순실관련중인 채택을 반대하라고 지지한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제발 리성을 찾고 지난 파오부터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 최순실사건에서 빠져나가보려는 《새누리당》을 《국감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중의 채택에 반대하고 방해한게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범죄자들을 은폐한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한 야당인사는 《알량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지도부의 지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새누리당》의원 전원이 최순실사건관련자들을 비호했다단 말인가.》라며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동에 면박을 주었다.

《새누리당》의 기만적인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대해서도 야당뿐 아니라 사회 각계들도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각발표에 곧바로 공식환원론평을 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의 철면피한 행위에 《이 경악스러운 《국정》 문란범죄의 공범자인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할것없이 최순실옹호역할을 온몸으로 해왔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인 《새누리당》의 지도자들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망각했다보다.》, 《《새누리당》은 경박한 언동을 삼가하고 자숙하기 바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야당에게 코를 꿰인채 수세에 몰려 갈팡질팡하는 여당》, 《아무리 맥도 추지 못하는 무색한 여당》, 《박근혜와 공범으로 함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새누리당》》이라고 《새누리당》을 신랄히 야유조소하고있다.

《주술정치》의 하수인과 방패막이역할을 함으로써 그 공범자가 된 《새누리=순실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동반자로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공범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일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자인 《새누리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청와대악녀와 함께 저승길에 보내려는 남조선민심의 단호한 의지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남조선의 초불집회장에서 울린 삼행시

박: 《박장대소》 한다, 세계인들이 근: 근데 넌 아직도 왜 청와대에 있느냐  
혜: 해(혜)피망축해서 국민은 죽고싶단 말이다.  
최: 최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순: 순실이만의 《대통령》이었던 말이나  
실: 실로 개탄스러워 죽고싶을 정도인데 넌 (박근혜) 왜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  
말이다. 쫓쫓쫓!



### 단 평 광화문의 단두대

며칠전 서울의 광화문 앞에 단두대가 나타났다 고 한다. 18세기말 프랑스 혁명당시 루이 16세를 공개처형하는데 리용되 었던것으로 하여 단두대는 혁명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누가 갔다놓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아주 파장으로 변한 서울의 한복판에 실물로 등장한 단두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다 안다.

남조선의 인터넷가입자들은 단두대사진을 놓고 저저마다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한 사람은 의인이다.》, 《저기 들 어갈 사람은 박근혜다.》, 《속시원한 설치미술이다.》 라는 글들을 올리였다. 이것은 최순실과 같은 일개 무당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넘겨주고 꼭두각시노릇을 해오

면서 인민들을 우롱하고 만 가지 죄를 저질러온 박근혜를 그 단두대우에 올려세우라는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 박근혜와 그 패당은 이 민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사과》니 뭐니 하는 온갖 오그랑수를 다 쓰면서 인민들을 또다시 속여넘기려 하고있다. 하지만 거기에 속아넘어갈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벌어진 현실은 민심을 거역한 독재자, 파쇼광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선무당의 지휘조종하에 북남판계도 파국에 빠뜨리 당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넘겨주고 꼭두각시노릇을 해오

비 《대통령》 박근혜의 마지막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인민들이 세운 광화문의 단두대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최석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

4일 남조선집권자가 두번째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의 내용이다.

최순실추문사건때문에 몹시 《괴로운》 심정을 토로 한듯하다.

《새누리당》 대표는 《속으로 평평 울었다.》고 노숙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정반대였다.

박근혜가 《사과》를 한것이 아니라 《감성팔이》를 한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남탓으로 넘기려는 오그랴수라는것이다.

그것은 지금 남조선사회에 파다하게 퍼지고있는 《이러려고》 풍자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국민들이 사과해야 할것 같다. 뽑아드려 죄송하다고.》, 《내가 이러려고 생방송으로 담화를 봤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과거사를 들먹이며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

# 《내가 이러려고...》

박근혜를 잘못 선택한, 뒤죽은데 고양이눈물같은 연기나 《사과》와 같은 미사려구에 더는 속지 않으려는 울분의 표시이다.

박근혜에게 속아 《개, 돼지》로 살아온 허무감과 분노를 표시한 《이러려고》도 있다.

《아이들이 (최순실이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냐.)고 묻는데 대답할수가 없다. 이러려고 부모가 된게 아니다.》, 《이러려고 학교 다니나.》, 《이러려고 출근했나.》, 《이러려고 가수했나.》, 《이러려고 코미디언 (희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지만 합니다. 정치가 이토록 웃길 줄이야.》, 《이러려고 취업준비생 됐나. 빈곤감되고 괴롭다.》, 《이러려고 소설가 됐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 《이러려고 세군 났나.》, 《이러려고 대학생 됐나... (과제감) 들고 괴로워.》...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20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되면 다 할것이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라와 결혼했다.》던 박근혜가 그 《나라》를 일개 무당에게 팔아먹었다고 격분해하고있다.

《취임전에는 (미혼이라 챙길 가족이 없어 국정에만 전념할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날 챙겨줄 가족이 없어 최순실에게 의지했다.)고 말을 바꾼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말은 박근혜의 교활성을 그대로 힐난한것이다.

말만 바꾼것이 아니었다. 《담화문》을 발표한후 박근혜는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일부 비서들을 해임하고 자신은 검찰수사까지 받게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눈가림에 불과한것이였다. 새로 임명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을 통해 검찰수사를 조종, 훼방하고있으며 《총리》임명을 《국회》에 던져 야당내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황수》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워보려는 타산에서 보수꼴통들을 내세워 제 예비의 동상을 세우려고 날뛰고있다.

더욱 미련한것은 《식물대통령》이 된 주제에 위기때마다 써먹던 《안보위기관》을 내몰려 미국에 매달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추진으로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이다.

죽간들간들한 권력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속심이다.

《내가 이런 꼴까지 보려고 (대통령)했다. 내가 개, 돼지들한테 사과하려고 (대통령)했다. (내가 다 해먹으려고 (대통령)했는데 채수없게siri(시리)》, 이것이 박근혜의 진짜본심이라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평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박근혜에게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박근혜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이는 이 모든 사건의 통로를 여는 게이트역할을 할것》, 《자신의 잘못을 남이야기하듯 하고 제3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과립치부터 사상초유의 국정붕괴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교만까지 어리석은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일이 슬프고 부끄럽다.》, 《박근혜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는데 진정 그런 생각이 든다면 더는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바뀐애, 방배!》, 《꿈수 그만! 거짓말 그만! 됐고, 퇴진!》, 《박근혜무당은 청와대에서 당장 나가라!》

11월 12일,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하야》, 《박근혜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에 나섰다.

정치적명을 다한 《식물대통령》, 인간추물인 박근혜는 뜻대로 알아야 한다.

감언리설로 민심을 가라앉혀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높아지는것은 민심의 분노뿐이라는것을.

본사기자 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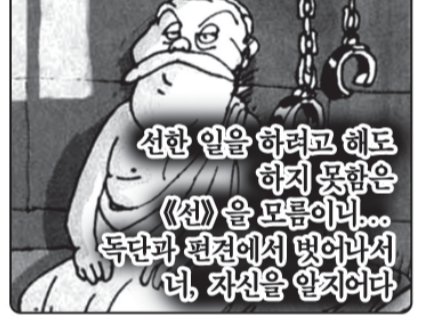
각하, 국정마비 수습책이 더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스스로 내놓으심이... 민심



개, 돼지들이 뭐길래... 절대 못내놔!



고대그리스의 한 철학자의 말이다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함을 《선》을 모름이나... 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알지이다

김진혁

2일 남조선의 극우보수분자들의 집합체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패거리들이 서울에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출범식》이라는것을 열고 래년에 서울한복판에 《유신》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박정희로 말하면 일찌기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써바친 특등친일매국노이며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하고 18년간이나 전대미문의 파쇼통치를 실시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파쇼폭군이다. 보수패거리들이 이런 민족반역자, 파쇼독재의 원흉을 《산업화의 은인》, 《애국자》로 둔갑시키다 못해 서울한복판에 동상까지 세우겠다고 하

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퉁이고 전연도전이 아닐수 없다.

하다면 남조선보수패당이 무엇때문에 지금같은 시각에 《박정희동상》을 세우겠다고 소동을 피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 급하니 또 애비에게 매달린다

오늘날 남조선사회는 지난 시기 류레조차 찾을수 없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일대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고있다. 정치인, 종교인, 대학생 할것없이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박근혜를 최순실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대통령》이라고 규탄하면서 박근혜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국선언들을 발표

하고 초발시위를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하여 박근혜의 신세는 바람앞에 선 초발보다 더 위태로운 처지로 굴러떨어졌다.

결국 보수패거리들이 떠드는 《동상》설치에는 박정희역도에 대한 《향수》

있는 동상도 부서버릴 판에 무슨 동상타령인가.》, 《광화문 지하 100m에 그 동상을 묻는다면 찬성한다.》, 《불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격이다. 제정신이 있는가.》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 청년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것을 선언

서울시관계자들도 《광장을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반대립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그 무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자리를 타고앉은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였던 정홍원이나 고문감투를 뒤집어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같은자들을 보면 박정희의 영향을 받은 《유신》

잔당들이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사회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유신》잔당들의 발악은 이처럼 지독하다. 이번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애비인 최태민이 배짱을 맞추며 돌아치던 《유신》독재시기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보수패당의 그 어떤 권모술수도 남조선인민들에게 통할리는 만무하다. 박근혜패당은 《박정희동상》설치같은 잔꾀가 궁지에 몰린 자들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진혁

남조선언론들에 의해 폭로된바와 같이 최순실은 《일본족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 대답하지 말고 미소로만 대응할것》, 《위안부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큰 틀에서 력사인

에로부터 피줄은 못 속인다고 하였다.

박근혜의 애비인 박정희역도는 다짜기 마사오라는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하고 일본천황

것은 겨레의 분노의 웨침

이다. 민족반역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것인지 박근혜와 최순실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명성

지금 은 남조선을 뒤흔들어놓고있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부정부패를 생존의 기본방식으로 삼아온 박근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최근 미래재단, K스프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현 집권자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들이 련이어 폭로되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4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박 (대통령) 재단 출연금 600억에서 1천억 늘어라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재단설립은 좋은 취지로 하는것이니 두 재단의 출연금규모를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여 모두 1 000억원으로 하고 출연하는 기업들

를 불러일으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분노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며 숨통이 끊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애비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보려는 박근혜의 흉악한 속내가 반영되어 있다는것이 남조선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어 《새누리당》내에서까지 《지금

은 겨레의 분노의 웨침

이다. 민족반역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것인지 박근혜와 최순실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명성

지금 은 남조선을 뒤흔들어놓고있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부정부패를 생존의 기본방식으로 삼아온 박근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최근 미래재단, K스프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현 집권자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들이 련이어 폭로되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4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박 (대통령) 재단 출연금 600억에서 1천억 늘어라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실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근혜가 《재단설립은 좋은 취지로 하는것이니 두 재단의 출연금규모를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여 모두 1 000억원으로 하고 출연하는 기업들

하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것이 성난 민심의 마지막명령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청년들의 신뢰를 잃고 자격과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였다.

남북관계과판과 민생과 국, 《국정교과서》추진,

개성공업지구폐쇄, 《싸드》배치책동,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등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반민주적만행과 폭력, 부정부패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청년들이 사회의 주인이라는것을 당당히 밝히고 박근혜퇴진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것

중되고있다. 그것은 직권람용, 공무상 비밀루설 등으로 규정될 때 법적인 책임은 최순실을 비롯한 일사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는 법률의 범위가 달라지고 형벌의 크기도 차이나기때문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전 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이 그동안 로동법이 나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법)》등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추진되고 미르, K스프로 재단에 돈을 낸 롯데 재벌이 비교적 낮은 당국

의 《저강도수사》를 받은 사실 그리고 자금을 낸 재벌총수들이 사면, 복권된 사실을 들어가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물과 제3자 최물수수 등 7개의 범죄혐의를 들어 박근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부패는 주는자와 받는 자사이의 음모와 결탁의 산물이다.

지금 현 집권자는 이번 사건을 일개 개인의 추문사건으로 몰아붙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나타난 사실들은 음모군, 사기군인 박근혜의 추악한 정체를 날 낚이 폭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만평 《이 기회에 일본어른들에게...》



앞에서는... 뒤에서는...

# 추문사건을 보는 미국의 흥심

대양 건너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매혹적인 먹이감이다. 그 미국이 지금 남조선의 파국상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익추구만을 타산하고 가능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사실 남조선의 이번 특대형 정치추문사건에서 미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껏 남조선 《정권》과 정치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시커먼 제국이 있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감투를 쓰게 된 것도 미국의 눈도장을 받고 막후지원을 받은 것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남조선정계호름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늘 지배의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문제를 알고 있었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2007년에 본국으로 보낸 비밀문건에는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이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최태민가족과 박근혜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모른체하고 친미보수세력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막후에서 조종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미국이 2012년에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중미주 영의 현지돌격대였던 미평화봉사단 출신 인물로 교체하고 수많은 선거전문가들과 모략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선거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박근혜를 떠밀어준 것은 그의 무능, 계층이 없는 닛, 예비에게서 물려받은 친미기질 등을 리용하여 마음껏 조종하고 침략적이며 탐욕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임은 두말할 것 없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집권 수년간에 친문학적역수의 미국무기를 남조선에 판매하고 《싸드》를 배치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이 남조선에서 뜯어낸 이익은 엄청나다.

그런데도 막다른 궁지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처지를 놓고 얼마전 미국 백악관이 《남조선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라고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의 처지가 미국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컷 써먹다가도 일단 저들의 식민지 지배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용도폐기》해 버리는 미국이라고 볼 때 37년전 《유신》독재자를 제쳐버린 것처럼 오늘은 그의 딸을 《폐기품》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남조선에 친미 《정권》을 들여얏기 위해 군사정변과 암살을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듯이 만일의 경우 더는 쓸모 없게 된 박근혜를 제 예비와 같은 방법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속궁냥도 있을 수 있다.

과열의 함정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박근혜를 부추겨 반공화국군 사적도발과 같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다.

최근 미중앙정보국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민심의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맹렬하게 벌리고 있는 속에 미국가안보국 국장이 극비밀리에 서울에 날아들어 밀담을 벌리고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인간인들에 대한 대외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 진행한 사실도 이것을 방증해준다.

벌써부터 남조선에서는 군부호전광들이 《안보위기》를 고취하면서 《2017년 4월 전쟁설》까지 내돌리고 있는 판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은 미국의 동향과 차후움직임에 대해 경계와 각성을 높이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최근 남조선의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남조선과 주변 아시아나라 주재 미국대사들과의 면담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는 《북의 핵, 미사일능력 고도화 및 핵사용위협이 동북아를 넘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느니, 《북핵문제가 양국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헛나발을 또 불어댔다. 그런가하면 세 대사가 등지를 뜬 곳들을 의식한 듯 《베세토》(BESETO)라는 해괴한 말까지 개어 올리며 《이들 도시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의 세축》이라고 식민지 노복의 구역질나는 추태도 부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권력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공개되어 사회전체가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해 경계와 각성을 높이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심복의 총탄에 맞아 뒤편지 37년이 되는 때에 터진 이 초대형추문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백일하에 발가놓고 있으며 청와대를 들부시는 무서운 정치태풍으로 되고 있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의 대화가 온 남녘땅에 용암처럼

헤와 등을 돌려대는 방법으로 살길을 찾아보겠다고 헤뎀비고 있다.

세계 각국의 통신, 방송도 남조선 《정권》의 이런 추악한 실상과 인민들의 투쟁소식을 그시그시 전하면서 침몰하는 《근혜순실》호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벌어진 이번 윤병세의 면담내용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초래된 국제적비난 여론을 모면하고 상전의 옷깃에 매달려 유명무실해진 반공화국제 재압박분위기를 살려보려는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윤병세가 다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아직도 《박근혜미이라》의 수족이 되어 《북의 핵》이 어찌고 저찌고 설쳐대고 있지만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씩씩대로 씩은 오물 《정권》, 《박근혜—최순실정권》의 완전붕괴는 이제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 망해가는 집안에서의 반공화국모의판

청와대는 《최순실부역자》들의 《사퇴》로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박근혜는 《숨쉬는 미이라》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남조선은 사실상 《권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상태》, 류례 없는 《정치적공황상태》에 직면하였다. 박근혜의 《내시집단》, 《사실정당》으로 불리우던 《새누리당》 것들조차 《박근혜탈당》과 《당지도부사퇴》를 요구하는 등 박근혜

호르고 있다.

청와대는 《최순실부역자》들의 《사퇴》로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박근혜는 《숨쉬는 미이라》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남조선은 사실상 《권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상태》, 류례 없는 《정치적공황상태》에 직면하였다. 박근혜의 《내시집단》, 《사실정당》으로 불리우던 《새누리당》 것들조차 《박근혜탈당》과 《당지도부사퇴》를 요구하는 등 박근혜

# 어메바의 무리

사상 류례없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으로 남조선사회가 극도의 혼란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사태를 수습해보겠다고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지난 시기 야당소속의 인물들을 《국무총리》와 청와대비서실장 등으로 내세우며 어찌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끼얹는 격이 되고 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현 집권자가 내세운 인물들로 말하면 권력을 쫓아가는 한갓 정치철새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청와대비서실장으로 된 한광욱이다.

한광욱으로 말한다면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자이다. 이런 그가 2012년에 있는 《총선》에서 략선택된 자 수십년동안 몸담아왔던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하였다. 그리고 돌아앉아서는 현 집권자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근혜는 제18대 《대

통령》직인수위원 겸 인수위 국민대통령위원장자리에 그를 앉혀주었다. 이러한 한광욱에게 남조선정계는 《권력을 쫓아가는 략반》, 《배신자》, 《정치철새》의 오명을 붙여준지 오래다.

지금 한광욱은 자기를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박근혜의 《은혜》에 감지덕지해하며 현 《정부》의 《국정공백》을 메꾸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통령》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떠들며 《국회》를 찾아 《여야당대표회담》을 추진한다느니 하고 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침울》해하고 《경황도 없다.》느니 뭐니 하며 동정론도 퍼고있는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계의 반응은 대소한의 추위보다 더 차갑기 그지 없다.

지금 야당들은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누가 비서실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한광욱을 《허수아비실장》으로 조소비난하고 있다.

야당들과 각계는 《회색인사들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얼질러진 민심은 다시 담을 수 없다.》면서 《야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한들 정국수습은 불가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박근혜 탄핵》,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국선언발표와 거대한 초불시위투쟁을 벌리고 있다.

현 집권자의 지지율이 5%로 줄러떨어지고 박근혜 퇴진여론도 60%를 훨씬 넘긴 이때 더우기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78.8%에 이른 지 된 《식물대통령》이 다 된 박근혜의 노복이 되어 그 무슨 《국정공백》을 메워보겠다고 설치고있는 한광욱의 모습은 구린내만 풍기는 오물통우에서 날아다니는 한마리의 쉬파리 모습그대로이다.

불어다 가볼래도 불어야지 다 죽은 정치송장에 게 매달려서 얻을것이란 수치와 과열을 같이 당하는 일일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최근 남조선에서 현대판러닌 박근혜의 지지분한 인간상이 하나둘 면모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의 무능과 추잡하고 부화방랑한 생활로 오명을 남긴 《진성녀왕》도 무색케 할 부패타락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감투를 쓰자마자 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박근혜 탄핵》,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국선언발표와 거대한 초불시위투쟁을 벌리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감투를 쓰자마자 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박근혜 탄핵》,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국선언발표와 거대한 초불시위투쟁을 벌리고 있다.

실일이 아닐 수 없다.

하다면 값비싼 침대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 리유는 무엇이었겠는가.

최근 씩은 고름집처럼 악취를 풍기며 련이어 터져나오는 최순실사건을 보면 그 대답을 쉬이 찾을 수 있다.

독신녀의 침대정사

그 침대들은 자기의 혼백을 지배하는 최순실을 청와대에까지 끌어들이 리유를 벌리며 항시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최순실은 박근혜의 취임직후부터 청와대비

서관의 차를 타고 이곳에서 수시로 드나들며 잠도 자고갔다고 한다. 이 침대우에서 세상을 경악시킨 최순실과 박근혜의 속덕공론이 이루어지고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졌으리라는 것은 십분 예상되는 것이었다.

독신녀의 침대정사

그 침대들은 자기의 혼백을 지배하는 최순실을 청와대에까지 끌어들이 리유를 벌리며 항시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최순실은 박근혜의 취임직후부터 청와대비

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숨겨갈 때도 박근혜는 바로 이 침대우에서 7시간동안이나 덩굴며 저 하나의 만족을 찾았을 것이다.

아마도 정윤희나 우병우와 같은 저질의 인간들이 이 침대우의 숨겨진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박근혜의 이 침대정사 때문에 남조선은 세상에 들도 없는 인간생지옥, 자살왕국, 재난왕국, 빈곤왕국으로 되어 버렸다.

침대정사, 이것은 《국민행복시대》를 귀맛 좋게 부르짖던 《준비된 여성대통령》, 닥그네의 진짜모습을 엿볼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리철민

## 도발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 한다

기반적인 《보육정책》을 비난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여성연대와 부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가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인 《보육정책》을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을 가

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민고 말길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어린이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등 매우 불만족을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최저의 출생률문제로 인한 위기앞에서도 보육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해산을 위한 휴

가, 휴직 하나 보장하지 않고있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 단체들은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이런 《정권》이라면 그야말로 무능하고 더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남조선보수패당이 동족대결과 군사적도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이 그 무슨 《빈틈없는 대응태세》니 뭐니 하며 룩해공군부대들에 《지휘서신》이라는것을 하달한데 이어 합참의장 등이 3야전군사령부와 7군단본부, 항공작전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군은 적만 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대결을 고취한것이 그렇다. 이 와 동시에 남조선군부대들을 《공지합동훈련》과 《〈한〉 미특수부대첩투훈련》, 《〈한〉 미영공군련합훈련》, 《〈한〉 미일미씨일경보훈련》과 같은 각종 북침전쟁연습에 내몰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동족대결과 군사적충돌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친미

사대와 동족대결, 파썸독재부활과 반인민적악정에 미쳐달뻐던 박근혜패당은 오늘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시간이 갈수록 따라 이번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라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체육 및 문화계 등 각계층속에서 박근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들이 발표되고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적초불투쟁이 남조선전역으로 타면지고 있다. 바빠난 박근혜가 두번에 걸쳐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도리어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지금껏 집권자를 떠받들어주던 전통적보수층마저 박근혜에게 등을 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신세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로 부터 벗어날수 있는 유일

한 출로를 바로 동족대결고취와 북침전쟁도발에서 찾고있는 것이다.

원래 동족대결과 군사적도발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써오던 상투적수법이기도 하다. 그러한 실례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문제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이러한 망동을 미국이 적극 부추기고 있다는데 있다. 얼마전 미국국가안정보장국 장관 겸 미군사이버사령관이 남조선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국방부것들과 속덕공론을 벌리고 남조선과 주변 아시아나라 주재 미국대사들이 외교부것들을 만나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거듭한것이 바로 그러하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유사시》를 가상하여 남조선에 거주하는 미군가족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벌린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결국 이것은 잊지도 않는 《북사이버위협》등을 구실로 정세긴장을 유

발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나 붕괴위기에 처한 친미 《정권》을 구원하여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속에서 《박근혜가 추문사건과문을 덮어버리기 위해 군사적충돌을 일으킬수도 있다.》, 《4월전쟁설이 대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박근혜패당에 의해 이 땅에 또다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력사는 이러한 도발자들의 운명이 언제나 비참한 종말로 끝나군 했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위기모면을 위한 군사적도발이 결코 멸망의 구렁렁이에 치박힌 저들의 운명을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